

## 마음건강이란?

우리는 ‘멘탈이 갑이다’, ‘유리멘탈이다’, ‘멘탈이 붕괴되었다’ 등 ‘멘탈’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멘탈’이 바로 ‘정신건강(Mental Health)’을 의미합니다. 마음(정신)건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도전 속에서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해 갑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 생각, 행동, 자기 몸의 신호를 알고 조절하는 법을 얻게 됩니다.

### 1. 마음건강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정신)건강은 삶 속 주어진 도전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두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성장하며 발전해 갑니다. 그 결과, 두뇌는 점차 많은 과제를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흔히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는 걱정, 공포, 슬픔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생각하고, 즐거움, 기쁨, 행복 등 긍정적인 감정만 느끼는 상태가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정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꼭 긍정적이고 편안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정신)건강을 ‘편안한’ 상태, ‘마음의 고통’,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 등 4가지의 상태로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2. 마음건강 상태와 대처방법을 이해해 봅시다.



※ 출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2021). 고등학교용 정신건강 리터러시 수업자료

#### □ 편안한 상태

- ‘편안한 상태’는 말 그대로 일상적이고 평범하며 편안한 상태입니다. 즐겁고, 친절하며, 배려심이 있고, 여유가 있는 상태 등이 해당합니다.
- 평소 ‘편안한 상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취미생활, 산책, 운동,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간 보내기 등 다양한 활동을 늘려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 일상적인 ‘마음의 고통(스트레스 반응)’ 상태

- ‘마음의 고통’은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경험하면, 화가 나고, 괴롭고, 슬프고, 실망하고, 안타까운 마음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정상적인 반응이며, 이를 ‘마음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 일상적인 스트레스로 ‘마음의 고통’을 겪는 것은 마음(정신)건강이 좋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고통을 견디는 힘을 키우고, 시행착오를 통해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법을 배워 나가는 것이 정신건강을 지키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특별한 ‘정신건강문제(트라우마 반응)’ 상태

- ‘정신건강문제(트라우마 반응)’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심각한 병의 진단, 재난(태풍, 사고, 전염병 등) 상황 등 평소보다 훨씬 큰 스트레스를 겪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 상태를 상처 입은, 비통한, 애절한, 절망한 상태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건강문제(트라우마 반응)’가 나타나는 것은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삶의 일부입니다.
- ‘정신건강문제(트라우마 반응)’를 겪고 있는 사람은 주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지인, 지역사회 등 주변 사람들이 공감하며 이분들의 마음을 알아차려 주세요. 따스한 배려와 지지로 상담과 필요한 도움을 연결해 주세요.

□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마음의 병(정신질환)’ 상태

- ‘마음의 병(정신질환)’은 일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나 특별한 트라우마 반응과는 매우 다릅니다. 의학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복잡한 원인들의 상호작용으로 뇌 기능이 변한 상태입니다. 흔히 불안장애, 우울 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음의 병이 지속된다면 일상생활을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예: 등교 거부, 대인관계 위축, 자해 등).
- 훈련된 정신건강 전문가(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며, 국제적으로 확립된 진단 기준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의 치료가 요구됩니다.

### 3. 마음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4가지 마음건강 상태는 연속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 또는 특별한 일로 인한 트라우마가 반드시 마음의 병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마음의 병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감정과 행동이 마음의 병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우리의 마음에는 한 개 이상의 마음 상태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각기 다른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고, 적절한 대처방법을 알아둔다면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마음의 병’이 있는 학생도 친구와 즐겁게 대화하고 신나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없는 학생도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가까운 친척의 죽음에 크게 상심하기도 합니다.
- ‘마음의 병’과 다른 마음의 상태를 동시에 갖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마음의 병’으로 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분들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힘들 때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건강하고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즐거운 활동을 늘려가는 태도도 마음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본 뉴스레터는 **교육부**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가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에 의뢰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해 주세요.

####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 02-6959-4640 (평일 09:00~17:00) ✉ smhrc@schoolkeepa.or.kr

2022. 9. 27.

이천중학교장<직인생략>